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씩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어니젠가 : 어느 사이엔가.

*씩기도 :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가제 : 갓. 방금.

*수라 :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② '쓸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③ ㉢의 '두려운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는군.
-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러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어니젠가 : 어느 사이엔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차디찬 밤에 ‘거미 새끼’가 방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립니다. 또 새끼 거미가 있던 곳에 온 ‘큰 거미’도 쓸어 버리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큰 거미는 새끼 거미를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큰 거미는 새끼 거미의 어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자는 큰 거미도 문 밖으로 쓸어 버리면서 새끼가 있는 데로 가라며 쓸어 내고 있습니다.

③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큰 거미를 쓸어 버리며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새끼 거미를 쓸어 버렸는데, 큰 거미가 그 새끼 거미를 찾으러 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이 새끼 거미를 쓸어 버린 행동을 생각하며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미 가족을 분리시켰다는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어데서 줍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삭기도 :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 가제 : 갓. 방금.

* 수라 :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이번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거미 가족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이 거미는 화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 작은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면서 가족을 만나길 바랍니다.

③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에 서러워하고, 이 거미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거미 가족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작품의 제목을 보면 ‘수라’입니다. 어휘 풀이를 보면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미네 가족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라’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거미 가족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는 지에 주목하면 되는 작품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디다. 화자의 정서가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베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화자는 '통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흙이랑 노는 것을 좋아하는 돼지를 위해 이런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돼지는 이 방에서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 등을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이 되어 이를 이용해 보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높은 분이 이를 미개하다 여겨 시멘트로 통시를 개량하게 됩니다.

③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하지만 화자의 몸 속에는 통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기는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화자나 섬사람들이 이 공간을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신이 거주할 만큼 신성한 공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작품 총평

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산문시입니다. 통시가 어떤 공간이고,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했으면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또 계절적 배경 또한 두 작품 다 알 수 없습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가)의 소재는 '거미', (나)의 소재는 '통시'입니다. (가)의 화자는 거미 가족이 가족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미를 쏘아 버립니다. 이것이 화자와 거미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의 화자는 통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에 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지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가)의 화자는 혼잣말을 하는 어조로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해요체를 사용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식의 어조, 즉 대화적 어조를 사용해 지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가)의 화자는 처음에는 새끼 거미를 쏘아 버릴 땐 아무 생각 없었지만, 큰 거미를 쏘아 버릴 땐 서러워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의 행위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 '나'는 '방바닥'에 있는 거미 새끼를 감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쏘아 버립니다. 단순히 거미를 쏘아 버리는 공간이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② '쓸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나'는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온 것을 보고 가슴이 짜릿합니다. 그러면서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면서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미 가족을 분리시켰다는 것에 대한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새끼 있는 데'는 '나'가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실감이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실감과 관련된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큰 거미 없어진 곳'에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등장합니다. '나'는 이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며 가족을 만났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합니다.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큰 거미 없어진 곳'에 온 이유는 가족을 찾으러 왔거나 하는 등의 이유일 것입니다. 거미들의 고통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해소되려면 거미 가족이 재회해야 할 것입니다.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립니다. '문 밖'은 거미 가족이 있는 곳이고, '방바닥'은 새끼 거미가 등장한 공간입니다. 두 공간이 대비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문 밖'이 거미들의 만남이 확신되는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화자는 거미네 가족이 서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
- ㉣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
-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 ㉠에서 돼지를 위해 '거처를 마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제 힘으로' 다시 빛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쓸모를 다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시 빛나는 존재입니다.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의 '두려운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 돼지의 주식이 사람의 똥인 이유는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똥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 통시는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곳입니다. 배설하고 먹는 행위를 통해 생명이 순환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기에 통시가 아직 화자의 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 가깝다고 표현한 것은 섬사람들의 인식이 하늘에 있는 신의 섭리에 부합하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이야기시'와 '산문시'에 대해 말하는 <보기>입니다 두 시의 특성을 <보기>에서 잘 파악한 후, 우리가 읽었던 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 (가)의 중심 소재는 '거미', (나)의 중심 소재는 '통시'입니다. 하지만 두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 (가)의 제목은 '수라', (나)의 제목은 '신의 방'입니다. (가)의 거미 가족이 떨어져 있는 부정적 상황을 '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나)의 '통시'가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기는 것을 '신의 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목을 통해 작품 내용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가)는 화자가 거미를 쓸어 버리고, 거미들이 가족과 떨어진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 사람들이 통시를 마련했지만,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해 시멘트로 개량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시나 산문시 둘 다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했기에 두 작품 모두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는군.

→ (가)는 화자가 새끼 거미,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계속 쓸어 버리는 행위의 연쇄가 나타나는 시적 구조입니다. 이야기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줄

글의 형태로 통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산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군.

→ (가)에서 화자와 거미는 합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자는 거미를 계속 쓸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은 세계와의 합일인데, 이런 특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통시에 대한 설명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문시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